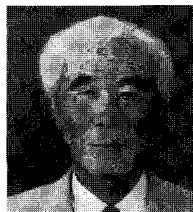


정농회의 창립이념과 발전과정



원경선(정농회 고문)

정농회의 어제

정농회가 출범한지 25년이 된다. 1976년 1월 부천에서 출범됐다. 그 출범식 때의 감격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있었다.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뚜렷하였고 방법론도 뚜렷했다. **농업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요, 인류의 구원이었다.**

창립까지의 경위

내가 1973년에 동두천 백만재씨 댁에서 일본 애농회지<애농>과<사랑의 집>을 보고 애농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1974년 가을에 미국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애농회를 찾아 고다니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약 두시간 면담 끝에 고다니 선생이 '지금까지 한국의 농촌관계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는데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말을 들으니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즉석에서 '그러면 내가 내년 농사철에 초청할 터이니 오라'고 했고 그도 쾌히 승낙했다. 그 다음해(1975년) 가을에 내 한해서 대전, 임실, 제천, 강릉 등 여러 곳을 돌아 보고 귀국 전에 부천 풀무원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그때 그는 '한국의 농업은 일본의 농업에 10년 뒤 떨어졌다. 절대로 일본의 농업을 뒤 따라오지 말

라. 뒤 따라오면 망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우리는 그 말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 농업에 대한 가치관과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특히 유기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해(1976년 1월)에 고다니 선생을 다시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고 고다니 선생의 인류 사랑에 대한 강조에 모두 흥분될 정도였고 우리도 조직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회의 명칭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애농회'라고 했지만 우리는 '정농회'라고 하기로 했다.

농사를 사랑만 해서는 안되고 바른 농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였다. 고다니 선생도 '정농회'라는 이름이 더 좋아 보인다고 했다.

회칙도 정관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성령으로 출발되었으니 성령의 인도대로 하자라는 것이다.

회장 선임에 있어서는 내가 견인차 역할을 했으니 내게로 지목이 되었지만 나는 일생을 기독교 전도자를 본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못한다고 사양하고 오재길 선생에게 그 짐을 맡기게 되었다. 나는 부회장으로 돕기로 했다.

창립 후 걸어온 발자취

오재길 선생이 14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여 회를 이끌어왔다. 그

도 자기 생애에 가장 고생도 많이 했지만 가장 뜻 있고 값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 다음 역대 회장들이 그 책임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회원도 창립 당시에는 4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백여명이 되었다.

정신적인 면

정농회는 초지일관 정농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여 왔다. 그동안 한국에도 민권운동이 일어나고 농민의 권리 찾기 운동이 일어났다. 다른 농민단체들이 이를 위해 성명도 내고 시위도 했다. 정농회원 중에는 그런 운동에 정농회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재길 회장과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우리의 위치는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고, 군대의 취사반과 같은 위치이다 라고. 권리 찾기 운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운동을 할 사람은 그런 운동 단체에 참가해서 하라고 했다. 그때에 그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던 회원들도 오늘에 와서는 역시 우리의 정신을 잘 지켜왔다고 고마워하는 회원들도 있다. 그때에 권리 찾기 운동하던 농민단체들도 지금에 와서는 정농회의 정신이 역시 옳았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자립 정신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적으로 하자고 했다. 타력에 의존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 부담으로 하기로 했다. 비교적 자립적으로 해왔지만 몇 번 외부의 원조를 받은 일이 있다. 요즘 와서는 그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자립적으로 해야 한다. 경제 자립 못하면 정신 자립도 못한다. 자립 정신 무너지면 정농회도

속살 없는 껍질만 남게 된다.

일본의 애농회도 한때 확장을 위해 다른 큰 힘과 손잡고 가게 되자 다시 각성하고 작지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일이 있다.

기간회원과 유동회원

그동안 25회를 거치면서 총회 때마다 새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꾸준히 정농을 하는 회원들은 초창기부터 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간회원이 조금씩 착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정농이란 원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5주년을 맞는 정농회의 오늘의 위치

식량문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30년 전후에는 세계적인 기아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UN의 통계를 토대로 검토한 논문이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장 레스터 브라운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것은 인구팽창과 공업문화의 반대급부의 결과이다. 인구문제는 문명에 따라 점차 정지되었지만 토지 문제는 공업문화를 생명문화(농업문화)로, 공업용 토지를 농업용 토지로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유기농업일지라도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증산도 해야 한다.** 화학농법은 물론 금지되어야 하지만.

식량의 질적 문제

21세기는 식량의 양(量)적 문제만이 아니라 질(質)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994년 덴



마크 어느 국제회의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남자의 정자 수가 50퍼센트 줄었다고 했다. 유기농산물을 먹은 남자의 정자 수는 정상이고 화학농법 농산물을 먹은 남자의 정자 수는 50퍼센트 줄었다고 했다. 1996년에는 미국에서 출판된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에서는 미국 남부 어느 지역의 생태계 조사에서 독수리가 80퍼센트 줄었고, 악어가 전멸되었는데 이것이 환경호르몬의 영향때문이라고 했다. 1998년에는 일본 데이교 대학에서 '40세 남자보다 30세 남자가, 30세 남자보다 20세 남자의 정자 수가 더 적다'고 발표했다. 1999년에는 농촌 남자

보다 도시 남자의 정자 수가 더 적다고 발표되었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는 인류의 생존문제가 위협을 받게 된다. 식량의 양적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정농회의 위치는 유기농법으로 인류를 파멸에서 건지는 중대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고 결심과 희망을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정농회가 오래 전부터 공부하여온 E. F. Schmacher의 유기농업으로 전력을 다해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 풀뿌리 주민지역대학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과정 환경농업과 *

제2기 신입생 모집

풀무 전공부는 생태 복원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혜와 지식과 실재능력을 배우려는 작은 풀뿌리 백성 대학입니다. 43년의 역사를 가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 경험을 모태로 하여 지난해 3월 개교한데 이어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 인원 : 남녀 30명

2. 입학 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3. 교육 방식 및 내용

가. 전원 자치적인 기숙사 공동체 생활

나. 가족 복합경영 농가로 구성되는 협동마을의 본이 되는 학교마을 운영

다. 국내외 친환경농업단체와 유대를 갖고 교육협력체제를 갖춘

라. 지역주민에게 강의를 공개하고 지역독농가의 현장 교실 실습

4. 학비 : 1분기당 255,000원이며, 기숙사비는 별도

5. 입학 구비 서류

가. 입학 원서 (학교에서 정한 것)

나. 입학 사유서

다. 사진 2매(3cm×4cm)

6. 전형 일정

가. 원서 교부 2001년 12월 10일부터

나. 입학 전형 : 2차 전형

① 대상 : 일반

② 원서 접수 : 2002년 1월 15일(화) ~ 1월 30일(수)

③ 전형 일자 : 2002년 2월 7일(목) ~ 8일(금)

④ 합격자 발표 : 2002년 2월 11(월)

다.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젊고 환경농업의 영농의지와 건전한 상식이 기준

라. 합격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 문의할 일이 있으면 아래로 하십시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과정 환경농업과
350-814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40번지

○ 홈페이지 : www.poolmoo.net

○ 전화 : 041-631-6604, 6605

○ 이메일 정민철 : jmchul@poolmoo.net

2001년 12월 9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장 **홍 순 명**